

軍을 고적대로 만드는게 문민통제?



문형철
국방기자 칼럼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서자가 대한민국에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군대는 문민의 통제하에 '어떻게 싸울까'를 고민해야 하는 무력사용의 전문집단이다. 하지만, 국군은 무기 명칭도 가려볼라야 하는 이쁜 고적대처럼 보인다.

지난 4일 북한군은 원산 호도반도에서 화력타격훈련을 실시하면서 단거리전술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수발을 발사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날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 발사'로 발표했다가 40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번복했다. 국가정보원도 한 언론매체를 통해 미사일이 아닌 발사체로 도발이 아니라고 전했다. 북한 로동신문이 다음날 훈련사진을 공개했음에도 군 당국은 "확인 중", "도발은 아니지만 9.19합의 취지 안맞아" 등의 소극적인 모습만 보였다. 무기체계와 관계된 용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발사체는 로켓, 미사일 등을 아우르는 용어다. 군 당국의 주장대로라면 우리의 현무미사일, ATACMS(에이태킵스) 지대지전술 탄도미사일도 발사체가 되고 미사일사령부는 발사체사령부가 된다.

군일각에선 "발사체는 'VARSACE(명품 브랜드의 패러디)'라고 이쁘게 써야하니"라는 자조적인 말도 나온다. 군사용어 사용에 눈치를 보는 군대가 '제대로 된 용병(用兵)'을 할 수 있을까. 항상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다.

국민의 군대가 문민통제 속에 놓여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의 하나의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군대 본연의 역량이 약화되서는 안된다.

최근 국방부는 최전방 DMZ에 둘레길을 만든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현재 북한은 냉랭한 반응이다.

기자단에 공개된 22사단 지역 둘레길 일대에 17년 전 소초장(소대장)으

로 부임한 적이 있다. 첫부임지였던 탓에 아직도 해당지역이 머릿속에서 흔히 그려진다.

둘레길 일대는 철책과 근무자 순찰로에 연해 있다. 군 당국은 경계근무에 문제 없다고 하지만, 17년 전 그 지역은 러시아인 관광객 등 일부 민간인들의 우발적 침범으로 장병들이 곤란한 적이 종종 있었다.

실탄과 보호장비를 휴대한 장병들이 경계를 하는 지역에 민간인들이 관광삼아 견어다닌다면, 군인들의 부담감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북한과 꾸준한 노력으로 굳건한 군사적 신뢰가 쌓인 다음에 둘레길을 만들어도 늦지 않다. 평화를 위해 군대는 목숨을 내던진다. 하지만 평화를 이유로 군을 묶어두면, 짓지 못하는 게 가 될 수 있다.

군대가 일자리 창출과 양성평 등 정부 시책만을 따라 멋지게 행진하는 고적대가 될지, 특정화 될 수 없는 모든 위협을 막아내는 방패와 창이 될지는 올바른 문민통제에 달려 있지 않을까.

/captinm@metroseoul.co.kr

부모님께 못하는 말 1위 “사랑해요” 듣고 싶은 것 “엄마, 아빠 웃음소리”

대학생 826명

5명 중 1명 “최고의 효도는 취업”

대학생들이 평소 마음에는 있지만 부모님께 잘 하지 못하는 말은 '사랑해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어버이날을 맞아 대학생 826명을 대상으로 '부모님께 못하는 말'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8일 결과를 발표했다.

1위로 '사랑해요' (42.5%)가 꼽혔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던 '고마워요' (11.2%)는 '사실 저 힘들어요' (16.3%)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5.8%), '죄송해요' (5.5%), '제가 더 잘할게요' (5.2%), '엄마·아빠가 최고예요' (3.6%) 등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뒤를 이었다.

'평소 마음과 달리 쉽게 내뱉는 말도 있다'는 응답자는 72.2%였다. 이들이 가장 후회하는 말은 '제가 알아서 할게'

'(32.2%)였다. 평소 건성으로 내뱉는 '네~' (16.4%), '아 쫌!' (14.8%), '아 몰라요' (11.2%), '이따가요' (8.9%)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 '휴~' (3.2%), '다음에요' (3.0%), '지금 좀 바빠요' (2.9%), '그냥요' (2.2%) 등도 있었다.

대학생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것은 '부모님의 웃음소리' (18.3%)였다. 2위는 '엄마아빠는 항상 네 편이야' (13.9%)가, 3위는 '우리 너를 믿는다' (10.9%)가 각각 차지했다.

대학생들은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로 '취업' (21.3%)을 꼽았다. 이어 '좋은 학점으로 장학금 받기' (17.3%)와 '걱정 끼쳐드리지 않기' (17.2%), '부모님과 자주 시간을 함께 보내기' (11.1%) 순이었다. '살가운 딸·아들이 돼 드리기'와 '아르바이트 등으로 경제 부담을 덜어드리기'가 각각 10.8%의 응답을 얻어 대학생이 꼽은 최고의 효도 공동 5위에 올랐다.

/김현정 기자

미래의 열정과 꿈, DDP서 찾는다

서울시교육청

오늘부터 사흘간 DDP서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진행

서울시교육청은 9~1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19 서울진로직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의 열정, 꿈과 함께'를 주제로 진행된다. 박람회에서는 ▲내면의 열정 찾기(진로탐구관) ▲꿈을 함께 설계하기(진로상담관) ▲열정의 형태 만들기(진로직업체험관) ▲미래에 꿈 담기(미래·창업관) ▲열정 나누기(꿈·끼나눔관) 등 총 5개의 체험관과 학부모 대상 진로특강이 운영된다.

진로탐구관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의 온라인 다중지능검사를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 성향을 알아보고 그에 알맞은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온라인 검사 후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학생 개인의 강점 지능을 토대로 진로상담을 해준다.

진로상담관은 진로직업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 멘토들과 상담을 진행하는 공간이다. 현직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진행하는 고입·대입·직업카드 분류상담, 유망학과·인기학과 대학생이 직접 상담하는 학과상담, 전문직업인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직업상담 등으로 세분화 돼 운영된다.

진로직업체험관에는 디자인·공예·

방송 등 다양한 분야의 진로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됐다.

미래·창업관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직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사물인터넷 체험, 3D 스캐너를 활용한 페이스 모델링 체험, 창업 체험 프로그램 등이 준비됐다.

꿈·끼나눔관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응원하는 이벤트 공간이다. 서울진로직업박람회 공모전에서 입상한 학생들의 작품을 둘러보고, 미래 신직종과 창업·창직과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소통의 공간이 될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한다.

/김현정 기자 hjk1@



국제발명전시회 참가한 선문대 창업동아리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2019년 국제 발명·혁신·기술 전시회'에 참가한 선문대 창업교육센터 소속 창업동아리 학생(오른쪽)이 말레이시아 학생들에게 출품작을 설명하고 있다. 선문대팀은 이 전시회에서 금상 2, 은상 2, 특별상 3 등 전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연합뉴스

국민대 대학원 박나영·이형규 학생 창의도전 아이디어 지원연구 사업 선정

국민대학교는 일반대학원 임산생명공학과 박나영·이형규 학생(지도교수 김형진)이 지난 4월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대학원생 창의도전 아이디어 지원연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박나영 학생 이형규 학생

이번 사업은 산림청이 자기주도·창의자립형 청년 산림과학자를 육성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산림 관련 전문가에 대해 대학원생이 직접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제 형태로 진행된다. 교수 주도형 사업이 아닌 대학원생·박사과정생이 직접 연구책임자로서 연구팀을 구성해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박나영 학생은 '전통 인피섬유 자원을 활용한 용해용 펄프 제조 및 응용기술 개발'을, 이형규 학생은 '제지슬러지 소각재의 탄산화법을 통한 경질탄산칼슘 합성과 제지산업적 이용'을 연구 주제로 정했다. 이들은 1년의 연구기간 동

안 총 3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박나영 학생은 제지공학 기반의 전통 인피섬유 자원으로 용해펄프를 제조하고, 이를 문화재 보존처리 시 대체재로 활용할 수 있는 특수소재 개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형규 학생은 제지공정에서 발생하는 제지슬러지 소각재를 탄산화법을 통해 경질탄산칼슘과 합성해 제지공정에 산업적으로 재이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연구 목표로 설정했다.

/김현정 기자

세종대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사업 대학교동아리 지원팀 모집

세종대학교 세종나눔봉사단은 오는 5월 12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2019년도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활동지원 사업' 지원팀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지역공동체 및 경제활성화 ▲주민 건강 및 복지서비스 확대 ▲생활환경 및 마을환경 개선 ▲교육기획 및 문화증진 등 총 4개의 분야다.

모집 대상은 최대 25명으로 구성된 전국의 대학 동아리다. 최종 선발된 팀에게는 400만원 이내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1차 심사는 소속 대학에서 진행한다. 2차 심사는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구체성, 적정성을 고려해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대사회협)에서 수행한다.

/김현정 기자

한성대 창의력 증진 위한 '상상력토크' 개최

한성대학교는 지난 7일 '제10회 상상력토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행사에는 서은경 상상력인재학부 학장, 전신종 교학부장 등 한성대 관계자를 포함해 재학생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학장 인사말, 전문가 특강,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이번 상상력토크는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프로세스'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초청된 채동훈 크리에이티브부터캡 대표는 광고 전략을 소개하며 핵심 비주얼과 메시지가 있는 창조물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했다.

채 대표는 ▲예상치 못했던 것을 보여준다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한다 ▲새로운 방법으로 보여준다 ▲위대한 드라마는 언제나 제품 속에 있다 ▲인간의 본성을 자극한다



채동훈 크리에이티브부터캡 대표가 '제10회 상상력 토크'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한성대

등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25가지 노하우를 전달했다.

한성대는 인문예술·사회과학·디자인·IT 관련 주제를 담은 상상력토크를 연 4회 개최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인문예술, 11월에는 사회과학 관련 주제를 놓고 상상력토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